깜박거리면 마음이 편해

(틱 장애)

초등학교 4학년인 S군이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병원을 찾았다. 그러나 이들이 병원을 찾은 이유는 순전히 “학교 담임선생님이 정신과를 꼭 데리고 가보라고 하니까”였다.

어머니는 처음부터 “담임선생님이 이 아이는 문제가 있으니까 꼭 한번 정신과 진료를 받게 하라”고 해서 왔지만, 그러나 진심으로는 “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 아이를 정신과 진료를 받으라고 하니 화가 나서, 문제가 없음을 밝히고 싶어서 왔노라”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였다.

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아이는 한 눈에 보아도 정신적 문제를 심하게 겪고 있는 불행한 아이였다. 어머니와 기초적인 병력 청취를 하는 동안에도 아이는 힘주어 눈을 깜박이거나 목을 한쪽으로 갑작스럽게 끌어당기는 듯한 동작을 계속하는 ‘틱(Tic)장애’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었다.

그 동작들은 어머니가 “너 그 습관 언제 고칠래?”라며 핀잔을 주면 잠시 멈추었다가 그 다음 곧바로 같은 동작을 수없이 반복해 대는 전형적인 것이었다. 어머니는 아이가 몸이 약해서 그런 것뿐이고, 그 때문에 보약을 계속 먹이고 있다고 강조하였다.

좀 더 놀랄 만 한 것은, “얘가 일 년 전까지만 해도 목을 탁탁 움직이면서 ‘악 악’ 소리까지 냈었다. 지금은 안 그런다. 그런데 왜 내 아이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나?”라고 하는 것이었다. 안타까울 뿐이었다. 그 아이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장애를 앓고 있었지만 무지한 부모로부터 그냥 그때그때 혼만 나면서 지내 온 것이었다.

함께 따라온 세 살 아래 동생은 형보다도 체격이나 키가 크고 얼굴도 두툼한데 반해 이 아이는 키도 체격도 작고 이목구비도 조그맣고 어딘가 기가 죽어 보였다. 아이의 부모는 이 아이를 ‘문열이’로 생각했던지 동생과 비교하여 꽤나 차별하고 구박을 하였다는 것을 엄마를 내보낸 후 아이와의 단독 면담을 통해 듣게 되었다.

틱 장애는 많은 아이들이 일시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겪으면서 대체적으로는 극복해 가는 특정 근육의 불수의적(不隨意的) 경축을 특징으로 하는 상태이다. 보통 7-9세 사이에 흔하며 전체 아이들의 10-20%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. 그 중 일부에서는 1년 이상

지속이 되며, 그 중 일부가 음성 틱(vocal tic)을 동반하는 '뚜렛 증후군(Tourette syndrome)'을 보인다.

그 원인은 잘 알 수 없으나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들어가는 시기에 시작되는 점과 집안의 구조적 불안정, 예컨대 부모가 별거를 한다거나 불화가 지속되는 경우, 위의 예에서처럼 부모의 태도가 노골적으로 편애하는 경향을 보일 때 그 편애를 받지 못 하는 아이에서 잘 보인다는 점으로 보아 긴장과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깊이 관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.

틱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틱을 하기 전까지 점차 고조되어 가는 긴장을 경험하며 그 긴장이 정점에 도달했을 때 한 번의 틱으로 긴장을 떨어뜨리는 일을 계속 반복한다.

한편 이 아이의 어머니는 "나는 결코 편애하는 법이 없다"는 점을 강조했다.

동생보다 성적이 나쁘니까 "동생보다 못 한 놈"이라고 했을 뿐이고, "동생은 제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얘가 벌로 밥을 굶을 때 동생은 밥을 먹었을 뿐이다"라고 하였다. "눈 깜박거리지 말라고 해도 이 녀석은 제 고집대로 힘을 줘 가며 깜박거리니까 욕 안 얻어먹겠냐?"라고도 하였다.

한편으로 부모의 심정을 이해 못 할 바도 아니다. 그러나 아이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면 우선 그 아이의 '눈높이'에서 아이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.

집안에서는 '등신', '병신'등의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집안 내의 끓어오르는 분노의 창구 역할을 하는 희생양으로 만들어 온갖 풍상을 다 겪게 만들어 놓고는 학교 교사나 병원 의사가 문제가 있다는 조언을 해주면 "내 아이가 뭐가 어때서?"라고 목청을 돋우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태도이다. 부모가 아이의 장래는 뒤로 한 채 자신들의 한풀이만 하고 있는 한은 문제의 해결이 안 된다.

치료에 앞서 우선 아이가 체감(體感)하고 있는 '인생의 무게'를 덜어 주기만 하여도 그 아이는 한결 나아질 것이다. 다시 말하면 고통 받고 있는 아이의 입장에서 그 고통을 이해만 해주어도 틱은 사라질 수 있다. 심각하게 오래 지속되는 틱은 그리 많지 않다.